

한국 산업발전 비전 2030

II. 2030 산업발전 비전 및 한국 산업의 미래상¹⁾

I	2030 메가트렌드
II	2030 산업발전 비전 및 한국 산업의 미래상
III	산업발전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

요 약

2030년 우리 산업은 “강건한 산업구조 구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자”로 재도약하는 것을 지향한다. 강건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간 견지해왔던 산업 및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구조혁신에 성공 시 우리는 글로벌 선도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2030년을 전후로 우리 제조업은 주요 제조강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전자산업과 수송기계산업을 토대로 소재·부품·장비로 이어지는 강건한 하부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산업에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부가가치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 2030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을 촉진할 것이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제공되며, 업종별로는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면서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율은 2018년 61.0%에서 2022년 62.4% 그리고 2030년에는 64.0%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경우 임금 수준 개선과 다양한 직무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다.

1) 본고는 2019년 발간된 산업연구원 보고서 「한국 산업발전 비전 2030」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1. 2030년 산업발전 비전

2030년 우리 산업은 “강건한 산업구조 구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자”로 재도약하는 것을 지향한다. 강건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간 견지해왔던 산업 및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구조혁신에 성공 시 우리는 글로벌 선도 산업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강건한 산업구조 구축과 새로운 가치 창출자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산업을 지능형 산업(Smart Industry)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한 생산시스템 혁신을 의미한다. 글로벌 공급 주도자 역할을 향후에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구조(Agile

〈표 1〉 2030 한국 산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

비전		Robust Industry 2030 ; New Value Creator
목표		산업 및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글로벌 선도 산업국가 실현
전략 1	Smart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반 수요 및 생산정보의 초연결성을 가져올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응한 생산 시스템 혁신을 통해 글로벌 공급 주도자 역할 구현 ▶ 산업 생산의 개념 설계부터 비교우위를 지향하여 부가가치 사슬 (Smile Curve) 상 위상 전환 및 제고
전략 2	Agil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통상질서 불안정 등에 따른 GVC 변화에 Off-shoring, Re-shoring, Near-Shoring 등 다양한 산업전략 포트폴리오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의해 추동되는 산업 경제 및 역할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는 한편, 산업의 재정의를 통해 새로운 수요의 산업화 촉진
전략 3	Dynamic & Inclusive Eco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발한 신진대사 및 동태적 혁신이 용이한 역동적이고 열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개별 기업산업 경쟁력을 뛰어 넘는 생태계 경쟁력 지향 ▶ 역동성이 효율과 성과 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 간 조화와 균형이라는 가치 지향성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갖춘 생태계 구현

Industry)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Off-shoring, Re-shoring, Near-shoring 등 다양한 산업전략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혁신에 의해 추동되는 산업·경제 변화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활발한 신진대사와 동태적 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산업 생태계(Dynamic & Inclusive Ecosystem)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효율과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 간 조화와 균형이라는 가치 지향성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우리 산업의 강건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 세 가지 혁신전략이 성공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 이식될 경우, 2030년 우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미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2. 우리 제조업의 미래상

(1) 한국 제조업은 주요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

2030년을 전후로 우리 제조업은 주요 제조강국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 고도화 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서비스화와 GVC 재편에 따른 국내외 생산 네트워크의 적절한 조합 등을 통해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 내 제조업의 비중은 25.1~28.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Global Insight 등 주요 글로벌 전망기관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다.²⁾

각국의 세계 경산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조업 생산 규모를 살펴 보면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2030년 글로벌 위상은 6위 수준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18년까지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를 유지했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인도에 추월을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 기준으로 혁신 및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순위는 6위로 동일하다. 다만, 성장추이를 연장할 경우 혁신시나리오 시 2030년대 후반에 한국의 제조업 생산 규모는 독일을 추월하여 5위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Global Insight에 따르면 2030년 한국 제조업의 비중은 23.1% 수준이다(Global Insight, "Comparative Industry Rev.4, July 2019").

〈표 2〉 글로벌 제조업 생산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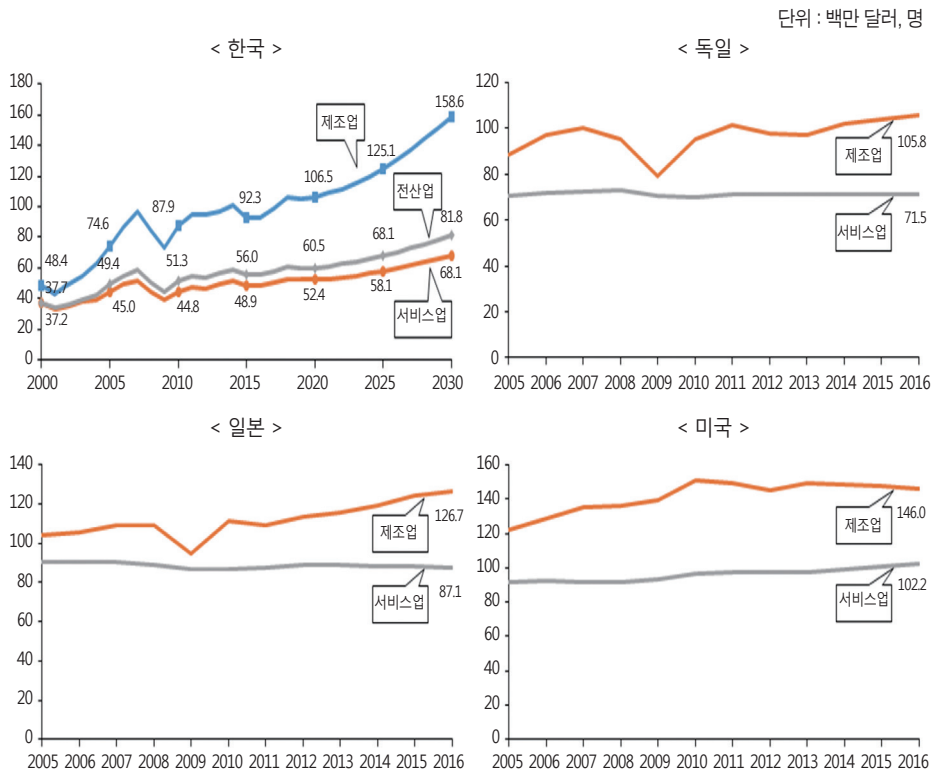
단위 : %

	2010	2018	2019e	2020e	2025e	2030e
중국	24.5	41.0	41.8	42.4	46.2	48.9
미국	13.8	12.4	12.4	12.2	10.3	9.3
인도	3.4	3.1	3.3	3.4	4.3	5.6
일본	9.4	5.5	5.5	5.4	4.5	3.9
독일	5.7	4.3	4.1	4.0	3.6	3.1
한국(혁신)	-	-	3.2	3.2	3.0	3.1
한국(기준)	3.5	3.2	3.2	3.2	2.8	2.4
인도네시아	1.2	1.1	1.2	1.2	1.5	1.8

자료 : Global Insight, *Comparative Industry Rev.* 4, July, 2019.

주 : 한국은 산업연구원(KIET) 전망치를 적용함.

〈그림 1〉 주요국 산업별 노동 생산성 비교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OECD Stat, Global Insight, 산업연구원(KIET) 전망치를 토대로 산업연구원 작성.

주 : 실질부가가치는 2015년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

(2) 제조업이 여전히 성장을 주도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는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제조업의 생산성 상승세에 기인한다. 전산업 노동생산성³⁾은 2030년까지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산업별 격차 또한 지속될 예정이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2015년 기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고속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이후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되나 성장추세를 지속하면서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 증가를 견인할 전망이다.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30년에 서비스업 대비 약 2.3배의 생산성 우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 수준을 계속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업과의 격차 규모는 한국에 비해 크지 않다.⁴⁾

(3) 제조업 구조 재편 및 질적 고도화 진전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위상을 토대로 향후 글로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주력제품과 생산방식을 재편하고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장의 품질을 제고할 전망이다.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전자산업과 수송기계산업을 토대로 소재·부품·장비로 이어지는 강건한 하부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산업에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부가가치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 생산체계 측면에서는 스마트 생산구조로 신속하게 전환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견인하면서, 동시에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현장으로 인식되어 기피도가 높아진 제조업에 우수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생산체계의 이행은 장비·로봇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도 제공한다. 한편, 스마트 생산체계의 성공적 도입을 통한 유연하고 신속한 생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제품의 고도화와 다양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해주는 기제이다. 이

3) 노동생산성은 실질부가가치(백만 달러)를 취업자수(천명)로 나눈 값이다.

4) 2016년 기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과 비교한 제조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미국이 1.4배, 독일 1.5배, 일본 1.5배 그리고 한국은 2.2배 수준이다(한국고용정보원, OECD Stat, Global Insight 자료를 토대로 산업연구원 작성).

〈표 3〉 제조업 구조의 변화 전망

단위 : %

산업군 ²⁾	부가가치 비중					부가가치 연평균성장률 (2018~2030)	
	2018	기준전망		혁신전망 ¹⁾		기준	혁신
		2022	2030	2022	2030		
수송기계	14.7	14.3	13.7	14.3	13.5	1.5	3.3
IT·전자	5.4	5.2	5.1	5.1	4.5	1.6	2.5
소재·부품·장비	58.0	57.7	57.3	58.2	59.0	2.0	4.2
바이오헬스	2.4	2.9	3.6	2.9	3.9	5.2	8.2
기타	19.5	19.9	20.4	19.6	19.2	2.5	4.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1	4.1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전망치를 토대로 작성.

주 : 1) 본 연구에서 "기준전망" 시나리오는 현재의 경제·산업·정책적 투입 수준이 2030년까지 큰 변화없이 추세가 우리 제조업에 지속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전망한 수치이며, "혁신전망" 시나리오는 현재의 추세를 뛰어넘는 경제·산업·정책적 혁신 노력이 수반되었을 경우의 산출 결과물을 의미.

2) 수송기계(자동차, 조선, 철도, 항공, 일반기계, 기타 수송기계), IT·전자(가전, 방송·통신기기, 컴퓨터·사무기기), 소재·부품·장비(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전자부품, 섬유, 석유·석탄제품, 기초화학제품, 합성수지·고무, 화학섬유, 기타화학제품, 고무·플라스틱, 유리, 도기, 기타 비금속광물,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 특수산업용기계, 정밀기기).

는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유망제품의 선도적 공급국으로 부상하게 해주는 지렛대이다.

제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 최종 완성재 산업인 수송기계산업과 IT·전자산업의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조업 혁신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면서 최종 제품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이 향후 우리 제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⁵⁾ 친환경화·스마트화 흐름에 따른 제품 및 생산 구조의 혁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IT 부품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고 경량 비철금속, 정밀화학소재, 첨단세라믹, 고성능 복합재 등 첨단소재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동시에 정밀가공장비 및 지능형로봇 등 고부가가치의 기계·장비산업의 위상을 제고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고도화와 국내 공급기반 강화는 우리가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최종재 산업군의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더불어,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우리 경제 내에서 의미있는 비중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이준 외(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소재와 발전 전략」 참조 바랍니다.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는 각 산업 주력제품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된다. 주력산업에서 중·저부가가치의 범용제품 비중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부가가치·고기능성 제품의 생산 및 수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초격차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제품 및 산업에서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유지·강화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 제품·산업의 경우에는 친환경화·스마트화를 토대로 생산 효율화, 판매 네트워크의 강

〈표 4〉 제품 기준 제조업 구조의 전환 모습

단위 : %

2018년			2030년		
순위	업종	부가가치비중	순위	업종	부가가치비중
1	메모리반도체	8,9	1	메모리반도체	9,8
2	내연차 및 부품	8,2	2	금속제품	7,5
3	금속제품	7,1	3	내연차 및 부품	5,1
4	기계요소	5,3	4	기계요소	4,5
5	범용 고무, 플라스틱제품	4,8	5	기타 전기기계 및 장치	4,4
6	범용 석유화학	4,7	6	범용 석유화학	4,3
7	기타 전기기계 및 장치	4,1	7	시스템반도체 등	4,3
8	식품품	3,5	8	바이오헬스	3,9
9	범용 철강	3,3	9	기타전자부품	3,7
10	통신기기	3,3	10	범용 고무, 플라스틱제품	3,7
11	석유 및 석탄제품	3,2	11	OLED & 차세대 디스플레이	3,3
12	OLED & 차세대 디스플레이	2,9	12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3,3
13	시스템반도체 등	2,9	13	식품품	3,2
14	LCD	2,6	14	첨단가공장비	3,0
15	기타전자부품	2,5	15	석유 및 석탄제품	2,8
16	바이오헬스	2,4	16	통신기기	2,6
17	첨단가공장비	2,3	17	범용 철강	2,4
18	가구, 기타제조업제품	2,2	18	미래차 및 부품	2,3
19	정밀기기	1,8	19	이차전지	1,9
20	기존 추진방식 선박	1,7	20	친환경 선박	1,6
21	기타비금속광물제품	1,6	21	정밀기기	1,4
22	가전	1,5	22	고부가 고무, 플라스틱제품	1,4
23	펄프 및 종이	1,5	23	기타비금속광물제품	1,4
24	섬유	1,3	24	고부가 정밀화학	1,4
25	범용비철금속	1,2	25	가전	1,4

자료 : 산업연구원(KIET) 전망치를 토대로 작성.

화,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제품구조를 점진적으로 고도화할 전망이다. 산업군별로 살펴보면, 수송기계산업군의 경우 단순 제조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완제품의 개념설계부터 판매·AS까지 밸류체인 전반에서 역할을 확대하면서 제품사용-신수요 연계로 이어지는 산업의 플랫폼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IT·전자산업은 스마트제품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AI 융합제품의 부상, 홈케어 가전 등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범용·기초소재에서 정밀·복합소재로 이행하고 핵심 부품의 국내 공급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기계·장비는 스마트팩토리 확산에 대응하여 일반기계에서 지능형기계, 장비와 SW가 융합된 솔루션으로 주력제품이 전환되고 가공장비·제조용 로봇의 핵심부품 자급화를 통해 밸류체인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 단위로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2030년을 전후로 한 우리 산업의 구조변화가 더 두드러진다. 메모리반도체의 비중은 4차 산업혁명 등의 추세에 따라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제품 구조가 미래차로 전환되면서 내연차 및 관련 부품 비중이 다소 하락하고 미래차 관련 부품이 새롭게 주력제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산업 역시 기존 추진방식의 선박에서 친환경정선박을 중심으로 제품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품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범용철강, 범용석유화학, LCD, 가전, 섬유 등 현재 우리 주력제품의 비중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산업 성장공식의 변화

산업 성장공식의 변화도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촉진한다. 변화는 우선, 생산방식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던 생산방식은 수요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방식의 변화는 스마트공장, 스마트야드 등 생산현장의 스마트화와 3D프린팅, 3D디자인, CPS 등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확산을 통해 진행된다. 스마트팩토리 확산은 중소·중견기업의 생산시스템 혁신과 전후방 연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생산시스템 변화는 일터혁신과 연계되면서 인적자원의 축적과 고도화도 촉진한다.

또 다른 성장공식의 변화는 핵심소재-첨단부품-장비산업으로 이어지는제조업 하부구조의 강건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성장이다. 소재산업의 질적 고도화는 제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내실을 다지게 한다. 또한, 핵심장비의 국내 공급역량 확보는 차세대 제품 개발과 공급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성과에서 시작된다. 즉, 과학기술 성과를 산업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확산하여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이다. 제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은 제조업 자체의 성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서비스 부분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최근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최종재 산업군의 경우, 서비스화 진전은 최종 제품을 단순하게 조립·가공하는 것을 넘어 판매에서 운영시스템 전반까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요소이다. 또한 디자인, 엔지니어링, 유통, 마케팅 등 제조활동과 연관된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가치사슬의 상향이동과 고용창출 역량 확대에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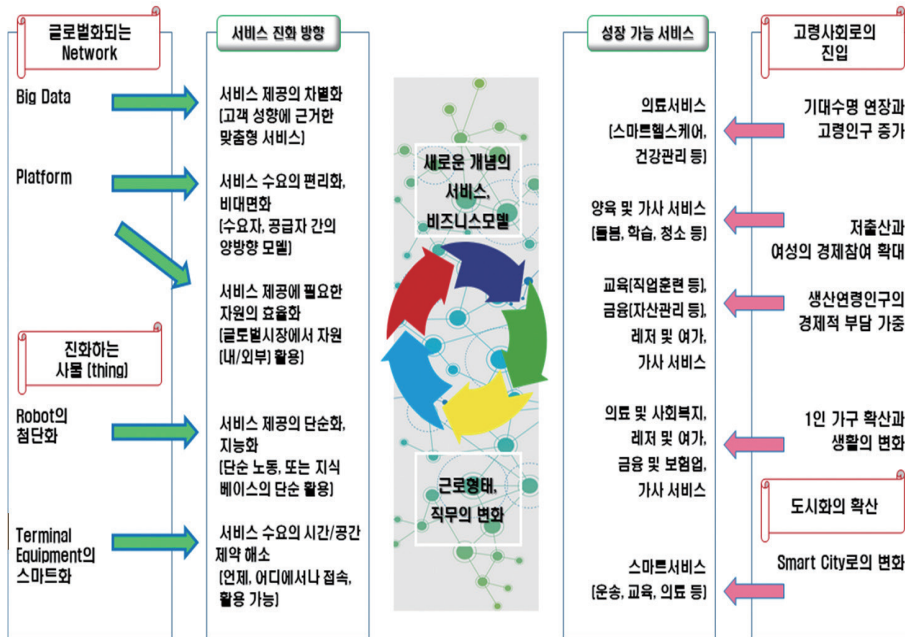
3. 2030년 한국 서비스업의 미래상

(1) 메가트렌드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회의 창 제공

최근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서비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

기술의 진전이나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등이 서비스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이 언급된다. 기술은 네트워크 구축과 로봇이나 단말의 진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말한다. 이는 무인계산대, 무인점포 등의 단순 도입이나 로봇 어드바이저, Watson, AI, 앵커 등 인공지능과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의 경우 서비스의 수요를 변화시켜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 확산이나 그 비중 증가로 인해 의료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가 늘어나고, 1인 가구의 확대는 가사나 레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유인하고 있다.

(그림 2)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진화와 성장 가능 분야



자료 : 박정수 외(2019), 「부산지역의 노동시장 특징과 고용 창출 방안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부산본부.

(2) 서비스산업의 발전적 진화

메가트렌드는 서비스산업의 변화에 상당 수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의 단순화, 편리화, 또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등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는 서비스 생산성이나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연계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많은 서비스업종에서 나타나겠지만, 그 진화 정도는 업종별로 차별적이다. 다른 한편, 서비스산업의 진화는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자리의 생멸에 따른 직무의 변화, 새로운 근로형태의 등장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응한 서비스 R&D 등의 혁신 활동이 전개되면서 서비스산업은 새로운 서비스 또는 다양한 개념의 비즈니스모델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플랫폼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렌딩클럽 등으로 대표되는 비즈니스모델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소비하려는 고객을 연계한 형태이다. 또한, 기술이나 여타 산업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형 비즈니스모델에서는 고객 요구에 특화된 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표 5〉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전개 방향

		주요 내용
사업목표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유휴 자원의 시공간적 활용성 제고를 통한 새로운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 네트워크 중심의 자원 활용 중심 서비스 (예시) 차량공유, 주거/사무공간 공유 등
	융합에 의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제공	융합기술 연관 부가서비스 시장 창출 스타트업의 생성과 소멸을 통한 산업생태계 성장 (예시) AI 융합형 비서 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
경제주체	서비스 이용자 (소비자) 관점	글로벌 플랫폼 활용으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의 다양화 및 선택 가능 시장의 확대 (예시) 모바일 이터닝 서비스, 글로벌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해외 여행지에서 모국어로 모빌리티 서비스 선택 가능)
	서비스제공자 (공급자) 관점	인력 기반 서비스 제공에서 융합기술 기반 무인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전환 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예시) 무인 배송 로봇, 자율주행 운전 등

자료 : 박정수 외(2019.8),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산업연구원.

(3) 수요자의 인식변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서비스산업의 미래 모습을 경제주체와 사업목표로 구분해보면, 2030년 미래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인식은 현재와 달라질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창의성에 기술을 접목하여, 과거에 제공할 수 없었던 서비스의 구현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요자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라 소비의 편리성 향상과 선택 폭의 확대라는 편익을 얻는다. 목표 관점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흐름과 기술이나 여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등장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물적 자산의 효율적 활용 외에 특정 가치를 부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4)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 견인

서비스 제공자의 혁신과 정부의 정책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서비스산업의 미래 모습을 주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들이 무리 없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부가가치 제고와 질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의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향후 “효율적 자원 활용과 소비자 만족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스마트화”라는 비전 속에서 “서비스산업의 스마트화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성장과 고용이 함께 하는 숙박·음식점업의 전문서비스

화”, “혁신기술 기반 상생과 균형의 교통·물류 산업 강국”, “금융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금융의 스마트화”,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예방 및 맞춤형 의료 제공” 등을 업종별 비전으로 설정할 수 있다.

2030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을 촉진할 것이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제공되며, 업종별로는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면서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비율은 2018년 61.0%에서 2022년 62.4% 그리고 2030년에는 64.0%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의 경우 임금수준 개선과 다양한 직무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다. 즉,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직종이나 직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가 나타나고, 이는 다시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면서, 구직자에게 고용 기회를 줄 것이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분화된 일자리를, 40~50대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한편,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서비스생산성 역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따라 그 향상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준

소재산업실·연구위원
jlee@kiet.re.kr / 044-287-3246
〈주요 저서〉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소재와 발전 전략(2018, 공저)
- 경남 소재부품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수립 연구(2018, 공저)



박정수

서비스산업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
jspark@kiet.re.kr / 044-287-3065
〈주요 저서〉

-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논의와 정책추진 방향(2019)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2019, 공저)